



코로나 팬데믹 속의 ‘탈아입구(脱亜入欧)’를 경계하며

일본은 코로나 대응에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정부는 지난 5월 25일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코로나19 긴급사태를 해제했다. 이로써 긴급사태 선언 발령 후 약 한 달 반 만에 일본전역이 긴급사태에서 벗어났다. 아베 수상은 당초 5월 말까지로 예정되었던 긴급사태를 조기에 해제한 이유에 대해 신규확진자 수가 50명을 밑돌고, 한때 1만명에 가까웠던 입원환자도 2천명 아래로 떨어진 점을 거론하며 코로나19 유행이 거의 수습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일본정부가 긴급사태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신규감염자가 대폭 감소하고 사망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며 일본정부의 “대책이 성공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5월 말 현재 일본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800명 선으로 미국(약 9만8천명), 영국(약 3만6천명), 이탈리아(약 3만2천명), 프랑스(약 2만8천명), 독일(약 8천3백명), 캐나다(약 6천3백명)와 같은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평가와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확진자 수가 낮은 것은 PCR검사를 ‘고위험환자’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실시한 결과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사망자 수치와 관련해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일본의 인구 10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일본이 7명으로 한국 5명, 싱가포르 호주 각 4명, 중국 3명, 대만 0.3명으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6월 4일 아소 부총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일본의 사망률이 낮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반면 짐 로저스는 『주간 아사히』 12일자 최신평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아시아 최악”이라고 혹평하며,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대책으로 뭔가 유효한 수단을 쓴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지도력을 발휘하

지 못하는 사이 일본 국내 상황은 악화됐다”라고 비판했다. 선진국 사이에서 나름 ‘선방’하고 있다는 일본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엇갈리는 견해들을 감안하면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성공인가 실패인가에 관한 판단과는 별도로 ‘성공’을 주장하는 견해가 보여주는 어떤 태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서구 선진국의 ‘실패’에는 초점을 두면서도 아시아 주변국의 ‘성공’을 철저히 무시하는 일종의 ‘탈아입구’의 태도이다. 바꿔 말하면 서구의 선진국만이 일본의 유의미한 비교대상이 된다는 이른바 ‘서구중심주의’의 사고이다.

여기서 ‘탈아입구’라고 말했지만, 현재의 그것은 19세기 후반 메이지 정부와 후쿠자와 유키치와 같은 지식인이 보여주었던 ‘탈아입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19세기의 ‘탈아입구’에는 국가적 존망의 위기에 ‘산업혁명’을 거쳐 ‘제국주의’로 올라선 서구 열강의 경험을 일종의 ‘성공’ 모델로서 채용한다는 국가전략의 측면이 있었다. 그 전략은 결과적으로 주변국과 일본 자신에게 불행한 역사를 초래했지만, 적어도 대외적 위기에 맞선다는 ‘실용적 합리성’은 작용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탈아입구’는 국가전략의 의미를 논외로 하더라도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성공’을 외면하고 서구의 ‘실패’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실용적 합리성’조차 결여하고 있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의 통계에서 호전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방역행정이 ‘성공’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 것은 이런 ‘실용적 합리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일본의 ‘성공’ 담론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단 ‘실용적 합리성’의 결여 때문만은 아니다. ‘성공’ 담론은 해묵은 ‘일본문화론’을 소환해 ‘서구/일본’이라는 유형론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심스럽다. 일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서구 선진국에 비해 약한 이유로 일본인은 평소에도 마스크를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고, 특히 일본어가 영어에 비해 침이 덜 튄다는 견해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런데 서구만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이런 일본문화론은 그것의 과학적 신뢰성은 제쳐두고라도 왜 마스크 쓰는 습관이 정착되지 않았고, 일본어보다 센소리가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일본보다 적은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사실 이런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일찍이 일본의 경제적 성공을 설명하며 성행했던 일본문화론은 사회경제적 변동에 대해 문화의 힘을 과신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서구’와 ‘일본’의 차이라는 단순한 유형론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발전과 일본의 경제적 ‘정체’가 겹쳐지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예찬’ 식의 일본문화론은 그 입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미 그 유효 기간이 만료된 문화환원주의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공’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슬쩍 얼굴을 내미는 형국이다.

돌이켜보면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은 '성공' 모델을 서양 혹은 자기 자신에서만 찾았다. 하지만 비록 짧은 시기였지만, '아시아'를 일본이 본받아야 할 '성공'의 모델로 간주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것은 패전의 충격과 점령의 상처가 '사상'을 규정했던 1950년 전후의 시기이다. 예를 들어 다케우치 요시미는 「근대란 무엇인가」(1948)에서 중국의 문호 루쉰이 형상화했던 유럽에서 도래한 근대와 부딪치며 고뇌했던 중국에 비한다면, 일본은 동양에서 가장 먼저 근대에 진입했지만, 그것은 유럽에 대한 저항을 결여한 몰개성의 '성공'이라며 자기성찰을 주장했다. 그리고 마루야마 마사오는 「아시아의 내셔널리즘」(1951)이라는 글에서 '사회혁명'과 결합한 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을 거론하며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그런 '혁명'의 경험이 부재함으로 인해 쉽게 '제국주의'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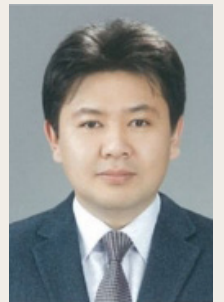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과거의 낡은 것 위에 다만 새로운 것을 얹는 방식의 일본적 근대였다. 그들이 '저항'과 '사회혁명'을 강조한 것은 과거와 미래가 부딪치는 곳에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저항 없는 근대화에서 일본의 성공은 보았다면, 그들은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초국가주의'(마루야마 마사오)와 '근대주의—민족을 사고의 통로에서 배제하는 경향'(다케우치 요시미)라는 변종의 근대가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패전과 점령으로 기존의 모델이 무너진 그때야말로 일본의 근대내셔널리즘을 갱신할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1960년대 고도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아시아'로 향했던 시선은 성공의 환호에 밀려나고 말았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일본에서 '아시아'가 새로운 사상적, 학문적 의제로 다시 떠오른 것은 1990년대 이후의 '동아시아공동체'론을 통해서였다.

앞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성공'의 서사에는 '실용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성공' 서사의 허술함은 비단 이런 결여감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일본의 방역행정을 지난 30년간 진행된 전후체제 붕괴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려는 인식이 좀처럼 작용하지 않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주지하는 것처럼 2019년 일본에서는 '레이와(令和)'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앞선 '헤이세이(平成, 1989~2019)' 시대를 되돌아보는 논의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헤이세이' 회고의 열기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동시에 식어버렸고, 코로나19를 둘러싼 이슈가 '헤이세이'를 총괄한다는 과제를 어느 순간 대체해 버렸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을 생각할 때 이것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레이와' 시대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과연 '헤이세이'의 역사적 유산과 분리시켜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헤이세이' 시대 30년은 전후일본을 지탱했던 기반이 서서히 붕괴되는 시간이었다. 1990년대 초반에 닥친 '버블경기'의 붕괴는 성장과 번영의 '전후'가 저물고 있음을 알렸다면, 1995년에 일어난 '한신아와지대지진'과 '옴진리교의 사린테러사건'은 어느 비평가가 말했던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전후의 지루한 일상'이 끝났음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었다. 뿐만 아니라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원전폭발사고'는 전후일본의 '안전신화'를 해체시켰고, 위기관리에 대한 정치의 한계를 결정적으로 노출

시켰다. 그리고 2011년의 '재난' 당시 목격했던 경직되고 불투명한 행정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났다. 정권이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바뀌었지만 매뉴얼에 상정되지 않은 재난 앞에 당황하는 행정은 변함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등장한 '성공' 신화에 안주하려는 안일함을 경계하고, 오히려 지난 30년간 누적되었던 전후체제 붕괴의 흐름 속에서 현재의 위기를 바라보는 냉정함이 아닐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일본에 대한 구상은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고, 타자의 '성공'을 편견 없이 참고하는 솔직함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서양'만을 유의미한 비교 대상으로 간주하며, 이웃의 성공을 애써 외면하는 일본의 '소심한' 우월의식에서 일본이 가야할 길이 열릴 리 없다.



서동주

서울대 일본연구소 조교수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